

공격 전부분 최상위권



■ 이승엽 리그 '최고 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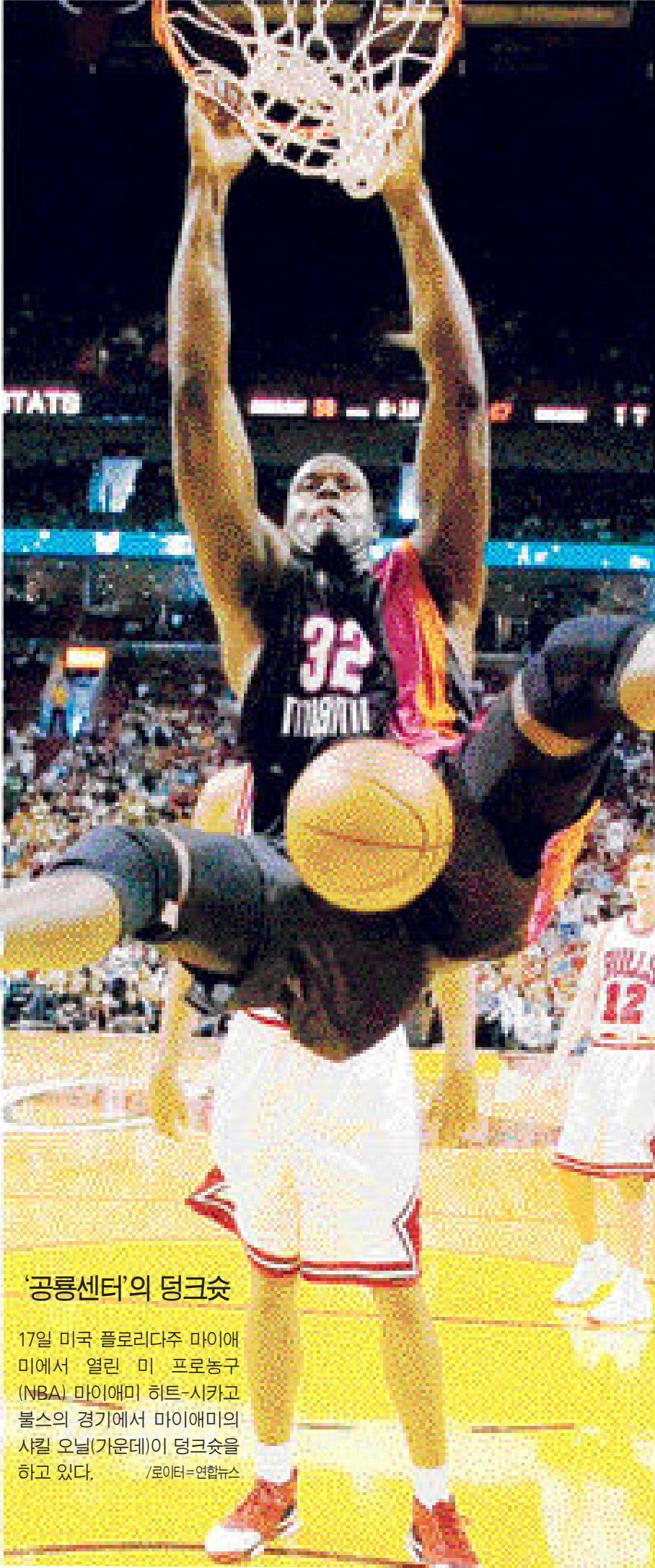
- 득점 1위 (20점)
- 타격 2위 (0.414)
- 최다안타 2위 (24개)
- 타점 3위 (15점)
- 홈런 6위 (4개)
- 출루율 2위·장타율 5위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센트럴리그 15개팀만에 리그 최고 좌타자로 우뚝서며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17일 현재 이승엽은 득점 1위(20개), 타격 2위(타율 0.414), 최다안타 2위(24개), 타점 공동3위(15개), 홈런 공동 6위(4개), 출루율 2위(0.485), 장타율 5위(0.707) 등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질주하며 센트럴리그 간판 타자로 부상했다. 특히 우타자가 득세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좌타자인 이승엽이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타격과 최다안타 1위인 앤디 시츠(한신), 타점 1위인 고쿠보 히로키(요미우리), 홈런 1위 하마나카 오사무(한신), 홈런·타점 2위인 무라타 쇼이치(요코하마) 등 센트럴리그

는 파워 넘치는 우타자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파워에서는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를 능가할 선수라는 평가를 받은 이승엽은 8게임 연속 안타 및 7경기 연속 멀티히트(2안타 이상)를 이어가며 정교함까지 두루 겸비해 '완벽하다'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요미우리의 주장인 고쿠보도 "이승엽이 4번타자로 좋은 성적을 내줘 우리 팀이 안정된 플레이를 해 갈 수 있었다"며 이승엽의 존재 자체에 큰 신뢰를 나타냈다. 지난 3월31일 리그 개막 후 17일까지 5번의 3연전 시리즈에서 모두 승리(2승 이상)한 요미우리는 과거 데이터로 볼 때 우승 확률에서 드디어 100%에 도달했다. 요미우리는 1953년, 1963년, 1971년 등 통산 3차례 개막 후 5연속 시리즈에서 모두 승리했고 그 해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센트럴리그 최고 좌타자로 거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이승엽이 지난해 지바 롯데를 우승시킨 데 이어

'청부사'로 요미우리의 우승도 일궈낼 수 있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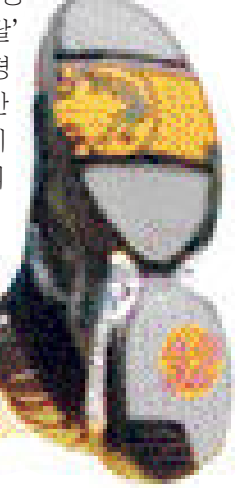


'공룡센터'의 덩크슛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 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시카고 볼스의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사릴 오닐(가운데)이 덩크슛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거인'·'쌍둥이' 제물로 '호랑이' 탈꼴찌 노린다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4할대 타격을 뽐내던 장성호가 '배탈'에 걸려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데다 5할타의 '작은 거인' 이용규의 '손 복'



부상'으로 팀 타선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최약체' 현대에 2연패를 당했고 꼴찌로 추락했다. 이번주 롯데, LG와 6연전을 앞둔 KIA는 다행히 장성호와 이용규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회복돼 중위권 도약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KIA는 최근 2연승을 달리며 2위에 랭크된 롯데와 홈 3연전을(18~20일), 6위 LG와 적지에서 3연전(21~23일)을 벌인다. 순위로는 KIA가 다소 불리해 보이지 않지만 팀 타선의 응집력만 살아나다면 충분히 히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7경기를 소화한 KIA는 17일 현재 롯데, LG보다 팀 방어율과 팀 타율이 크게 앞서있다.

■ 금주의 프로야구

KIA의 팀타율은 8개 구단 가운데 SK에 이어 2위(0.267)로 롯데(0.239), LG(0.209)보다 높다. 팀 방어율은 3.34로 롯데(4.50)와 LG(3.78)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팀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한 게 흠이다. KIA는 18일 롯데와의 시즌 첫 대결에 그레이 싱어를 선발 투입하고 이용규(0.500)와 이재주(0.357), 장성호(0.323)를 중심타선으로 세워 집중력 높은 경기를 벌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롯데의 전력도 만만찮다. 롯데는 연일 클러치포를 터트리고 있는 브라이언 마이로우와 이대호의 물오른 발판이 위력적이다. LG는 롯데에 비해 쉬운 상대지만 원정 3연전이라는 게 부담이다. 박용택(0.333)을 제외한 박경수(0.185), 이병규(0.182), 마해영(0.207) 등 중심타선이 빈타에 허덕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KIA가 안방에서 롯데를 잡고 LG전에서 삼승세를 이어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한주다. 한편 KIA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기념 행사로 출전 선수들의 사인볼과 모자 등 다양한 경품을 팬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첫승 또 실패 최희섭 3경기 연속안타

서재응(29·LA 다저스)이 시즌 2번째 선발 등판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 지원 부족으로 시즌 첫 패전을 떠안았다. 서재응은 17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6안타, 1볼넷, 2실점했다. 타선이 침묵한 다저스는 0-2로 패했다. 0-2로 뒤진 6회 말 공격에서 대타 코디 로스와 교체돼 경기를 마친 서재응은 팀이 접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 패전 투수가 됐다.

허벅지 근육 부상에서 돌아온 최희섭(27·보스턴 레드삭스)이 마이너리그에서 3경기 연속 안타로 타격 감각을 끌어올렸다. 보스턴 산하 트리플A 포터킷 레드삭스 소속인 최희섭은 17일(한국시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나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샬럿 나이트(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1루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에 안타 1개를 때리고 볼넷 1개를 얻었다. 최희섭은 이로써 11타수 4안타(타율 0.364), 3타점, 3볼넷으로 맹활약을 펼쳐 비리그 재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최향남 트리플A 무실점 역투 유제국 트리플A 첫승 실패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트리플A 버팔로 바이슨스의 우완투수 최향남이 시즌 4번째 등판에서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중간 계투로 뛰고 있는 최향남은 17일(한국시간) 뉴욕주 던 타이어 파크에서 벌어진 클립퍼스 클리퍼스(뉴욕 양키스 산하)와 홈경기에서 팀이 2-5로 뒤진 5회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슈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 산하 트리플A 아이오와 컵스의 우완투수 유제국이 구원투수의 난조로 트리플A 첫 승을 아깝게 놓쳤다. 유제국은 17일(한국시간) 텍사스주 메달리아몬드라운드록 구장에서 벌어진 라운드 록 익스프레스(휴스턴 산하)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홈런 2방을 포함해 안타 5개를 맞고 3실점했으나 켈리시타트(6이닝 3실점 이내 투구)한 뒤 4-3으로 앞선 8회 감판했다.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탈폴 망수전원!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주)태양주박개발 TEL:0621 282-0606 28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설/양도/임수

青碩 C&S TEL: 011-512-0247-0 FAX: 011-5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특수방수재 드림코리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TV방송 출연 교수진!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5월 1일 개강! 행정고시학원 TEL: 361-8111